

나무로 그린 그림
바라봄 - 개인전

나무가 흘린 눈물,
너의 위안이 되고

토닥 토닥

JeeYong Chang

Wood & Resin Art Exhibition
2019

바라봄
BARABOM

| 전시회명 "토닥토닥". 나무가 흘린 눈물, 너의 위안이 되고 |

| 작가 장지용 | 일시 2019.12.18~24 | 장소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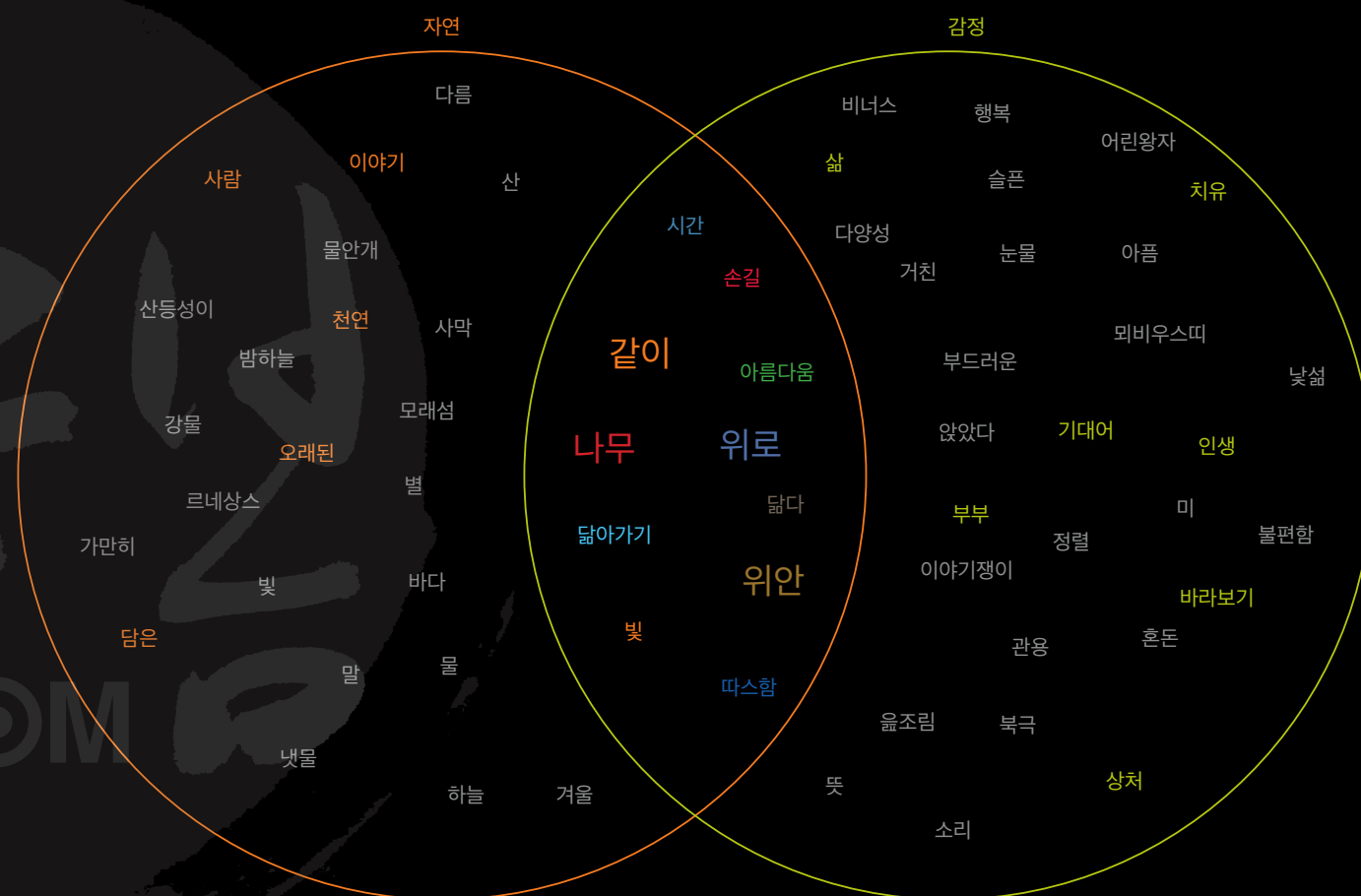
나무로 그린 그림
바라봄 - 개인전

나무가 흘린 눈물,
너의 위안이 되고

도닥
도닥

JeeYong Chang
Wood & Resin Art Exhibition
2019

BARABOM



장지용님의 개인전을 축하드리며...

仙岩(선암) 김종화

살다 보면 가슴을 잔잔하게 흔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작가 장 지용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 띤 표정을 속에 고뇌에 가득 찬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뇌는 남다른 따뜻함과 울곧음이 있고, 작품에 대한 순결한 애정도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내놓으셨던 작품들에서 오랜 세월 묵은 고뇌의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그는 모든 나무 조각들이 개성적인 모습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싶다고도 합니다!

그 이야기 위에 작가 장 지용님의 마음을 덧붙이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장한 작품 속에는 파트라슈가 뛰놀던 플란더스의 언덕이 있고, 어린왕자가 몇 발자국만 걸으면 일출과 일몰을 번갈아 가며 볼 수 있는 B-612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액자만한 작은 호수에 물살을 밀어대는 고래의 용틀임이 보이기도 하고, 분위기만 가지고도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듯, 초봄 연두색 뒷산이 자리하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형상이 구상화와 같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라봄 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은폐되어 있던 저마다의 기분 좋은 기억들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바라봄 만으로도 작품 속의 이야기가 살아 나오는 걸 보면, 그의 바라봄은 작품을 잉태하기 위한 신선한 고뇌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목재와 익숙한 재료의 조합에서 벗어나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액상의 주재와 경화제를 최종적으로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작가의 심미적 DNA를 가

미하여 색상과 형상에 변형을 주어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예술은 기본적으로 공학적 지식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얇은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버테이블이나 레진아트라는 말들이 이제서야 몇몇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보편화된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가의 구분이 모호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지용님은 오래 전부터 이 분야의 실무적 전문가였습니다. 오랜 기간 이 분야에 종사하며 축적된 내공이 예술가로서의 DNA와 함께 발현된 작품들을 전시회에 출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간의 눈을 홀리는 기교와 화려함 보다는 진중하고 담백한 표현을 좋아하나 봅니다.

어제는 은은하고 묵직하게, 그리고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 나무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갑니다.

오늘은 조용한 나무를 깨우듯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리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거부감이 드는 과함은 없습니다.

조화라는 타협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자칫 과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소재들의 조합인데, 소리를 메기고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제백석이 개구리를 그려오라는 관료의 요구에 개구리 울음이 넘쳐날 것만 같은 그림을 그려 보냈다는 고사처럼 그의 작품 속에 나를 그리지 않았음에도 내가 들어가 노닐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도 들게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며 쏟아 부은 작가 장지용님의 인간적, 예술적 고뇌에 즐겁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작품과 작가가 나누는 대화를 즐겁게 상상하면 기분 좋은 미소가 흐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슴속의 서정을 즐기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문을 은입사한 사인검
흑단+은 / 2011



명문을 은입사한 사인검
흑단+은 / 2011



김종화 : 목공, 서각, 목선반, 진공건조, 예폭시, 레진 등 목공전문 수업과 온라인목공카페 '깍기공방' 등 운영 및 국내최초 목검 전시(2011, 경인미술관)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활동을 하고있다.

상처가 나무가
_ 주는 흘린 눈물,
_ 위안 너의 위안이 되고



한 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한 분을
응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인지",
"해야 하는 일인지"에 대한
자문에 결심을 합니다.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무가
주는 위안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작가 바라봄이 만들어가는 나무로 그린 그림,
" 토닥토닥 2019. 나무가 흘린 눈물, 너의 위안이 되고 "



그룹순서

1. 상처가 주는 위안
_ 나무가 흘린 눈물, 너의 위안이 되고
2. 하늘이 주는 위안
_ 해돋이의 생명력과 해넘이의 치유력
3. 물이 주는 위안
_ 아라와가람에의해씻겨져나가는아픔
4. 혼돈이 주는 위안
_ 혼돈의 낮섬과 불편함마저 감싸 안는 나무
5. 기타
_ 또 다른 나무이야기
6. 우드레진퍼니처
_ 나무와 레진이 만들어낸 가구들



작품번호 001
바다로 가고 싶어요

설명: 바다가 그리운 고래 한마리
목재: 피시픽메이플 Size : 720*330mm, 2019-001

상처가 나무가
주는
— 너의
— 위안 위안이 되고



작품번호 002
다시 올 겨울을 꿈꾸며

설명: 복극의 어미곰과 아이곰이 꿈꾸는 예전의 겨울을 생각해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스텔티드 / Size : 610*240mm, 2019-002



작품번호 004
새로운 시작

설명: 시작은 항상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기 위한 시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수종: 월넛 / size: 1470*445mm, 2019-004



작품번호 003
따로 또 같이

설명: 한 뿌리에서 태어나고, 한 줄기로 자라난 나무. 시간이 서로를
갈라놓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 몸인 것을...
수종: 월넛 / Size : 680*640mm, 2019-003

상처가 나무가
 주는 홀린 눈물,
 너의
 위안 위안이 되고



작품번호 005
 살곶빛 추억

설명: 빛 바랜 사진 속에 그리움 한 덩이만큼, 정감으로 가득한 나무와 만납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990*370mm, 2019-005



작품번호 021
 부부

설명: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기에 달아가는 사람 둘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660*285mm, 2019-004



작품번호 006
 시간여행

설명: 많은 시간을 같이하다 보면 마음도 전해지나 봅니다.
 수종: 느티 / Size : 700*2070mm, 2019-006

BARABOM

상처가 나무가
 주는
 위안
 | 나뭇가
 흘린 눈물,
 너의
 위안이 되고



작품번호 022
 아름다움에 대하여

설명: 미의 여신 비너스의 나무, 아름다움으로 다가온 나무
 수많은 다양성을 갖고, 그 모습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수종: 버들 / Size : 775*32mm, 2019-022



작품번호 024
 다시 만날 수 있음에

설명: 누군가와 길을 같이 걷다는 것. 많은 이야기를 흘려 나누고
 다시 만날 그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지나 보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565*310mm, 2019-024



작품번호 023
 오래된 느티의 시간

설명: 300년을 살아 낸 느티의 시간. 내 시간과는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봅니다.
 수종: 느티 / Size : 690mm, 2019-023

상처가 나무가
주는
너의
위안
| 울린 눈물,
| 너의
| 위안이 되고



작품번호 025
산을 품다

설명: 산을 품은 바다.
나무가 보낸 아픔의 시간이 화려함이 아닌 위안으로 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수종: 페시픽메이플 / Size : 770*264mm, 2019-025



작품번호 026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설명: 보이는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사는 삶을 되돌아봅니다.
수종: 페시픽메이플 / size: 430*295mm, 2019-026



작품번호 027
거침과 부드러움

설명: 거칠지만 부드러운 자연을 만납니다.
수종: 페시픽메이플 / Size : 580*365mm, 2019-027



작품번호 029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이야기

설명: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귀를 여는 것이 아닌, 마음을 여는 행위.
수종: 페시픽메이플 / Size : 630*280mm, 2019-029

상처가 나무가
 주는 너의
 위안 위안이 되고

16



작품번호 030
 나무의 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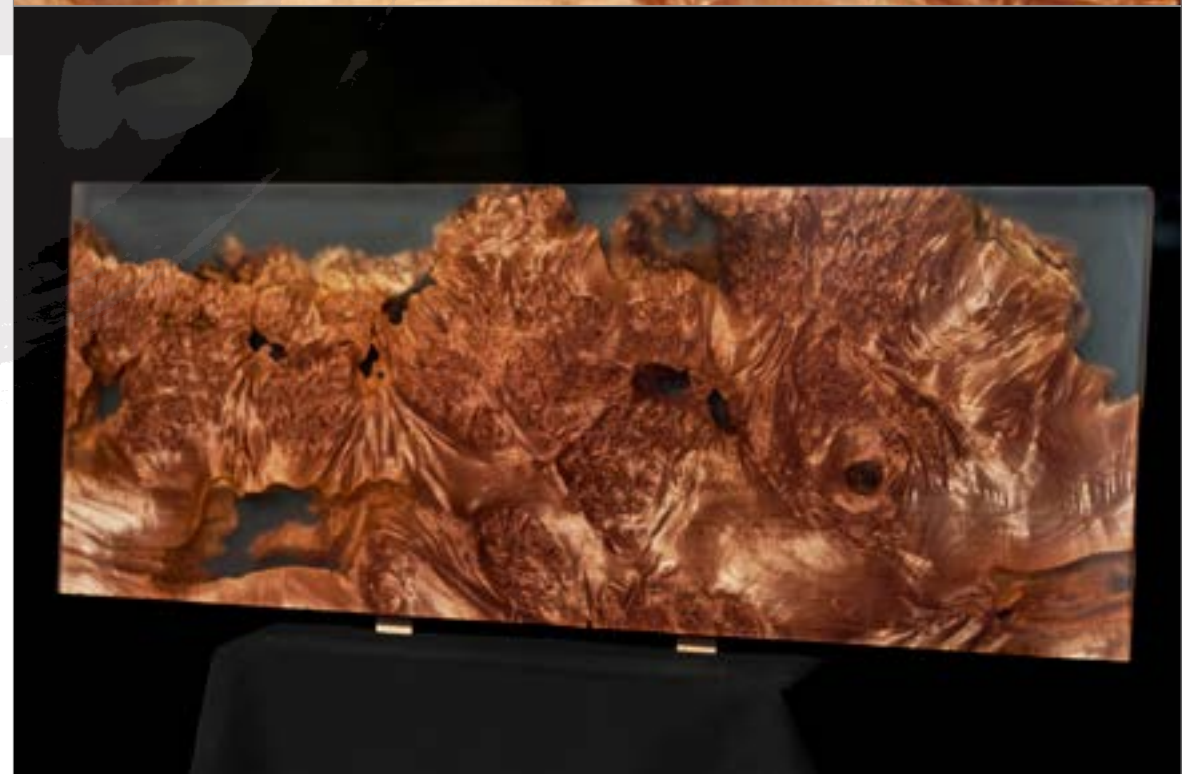
설명: 나무가 힘들어 한 상처가 아름다움이나 위로가 아닌
 함께 느끼는 고통으로 다가 올 때도 있습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720*325mm, 2019-030

17



작품번호 031
 커피

설명: 나무향기와 커피향기는 왜 맡고 있어도 그리운 걸까요...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630*290mm, 2019-031



작품번호 028
 아름다운 상처

설명: 나무의 아픈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움이 되나 봅니다.
 나무의 상처와 우리의 상처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수종: 메이플 / size: 955*370mm, 2019-028

하늘이
— 주는
— 위안
해돋이의
생명력과
해넘이의
치유력



작품번호 052
어떤 황혼

설명: 산등성이에 걸린 어떤 황혼을 만납니다.
수종: 피시픽메이플 / Size : 505*345mm, 2019-052



작품번호 051
어린 왕자의 슬픈 날

설명: 마흔 번 님게 해넘이를 본 날을 생각합니다.
수종: 피시픽메이플 / Size : 765*330mm, 2019-051



작품번호 053
어린왕자가 사막에서 바라 본 밤하늘

설명: 모래언덕 너머로 슬프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을 봅니다.
수종: 피시픽메이플 / Size : 685*325mm, 2019-053

BARABOM



작품번호 054
산을 닮아 가는 나무

설명: 산 속에서 자라던 나무가 산을 닮아 갑니다.
수종: 피시픽메이플 / size: 755*255mm, 2019-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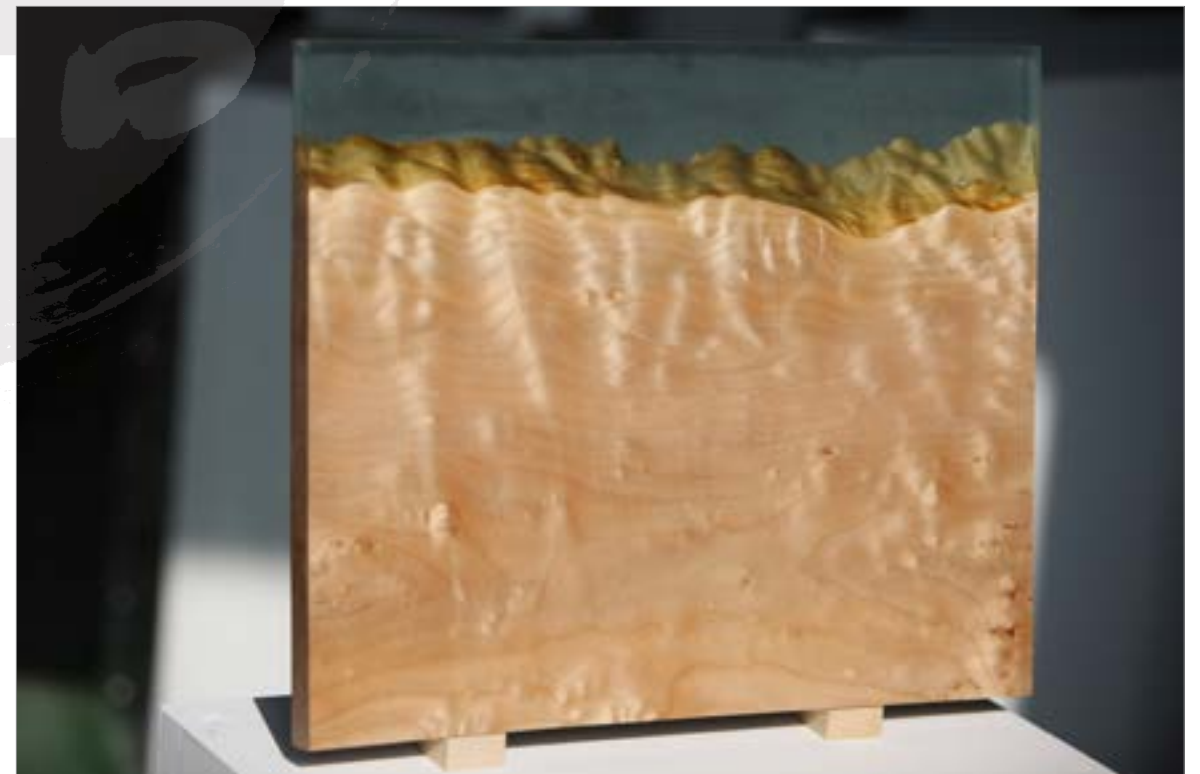
작품번호 056
질은 어둠 속에 별이 내리다

설명: 별이 어둠 속에서 빛나기에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빛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수종: 피시픽메이플 / size: 445*345mm, 2019-056



작품번호 055
첫 눈

설명: 언젠가부터 첫 눈을 기다리는 마음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첫 눈이 하늘을 알립니다.
수종: 피시픽메이플 / Size : 475*360mm, 2019-055



작품번호 057
빛 바랜 사진

설명: 낡은 사진 속의 그림던 하늘을 떠올려 봅니다.
너무도 평범해서 잔잔한 그리움만으로 남아 있는 어느 날의 하늘을...
수종: 피시픽메이플 / size: 465*380mm, 2019-057

BARAB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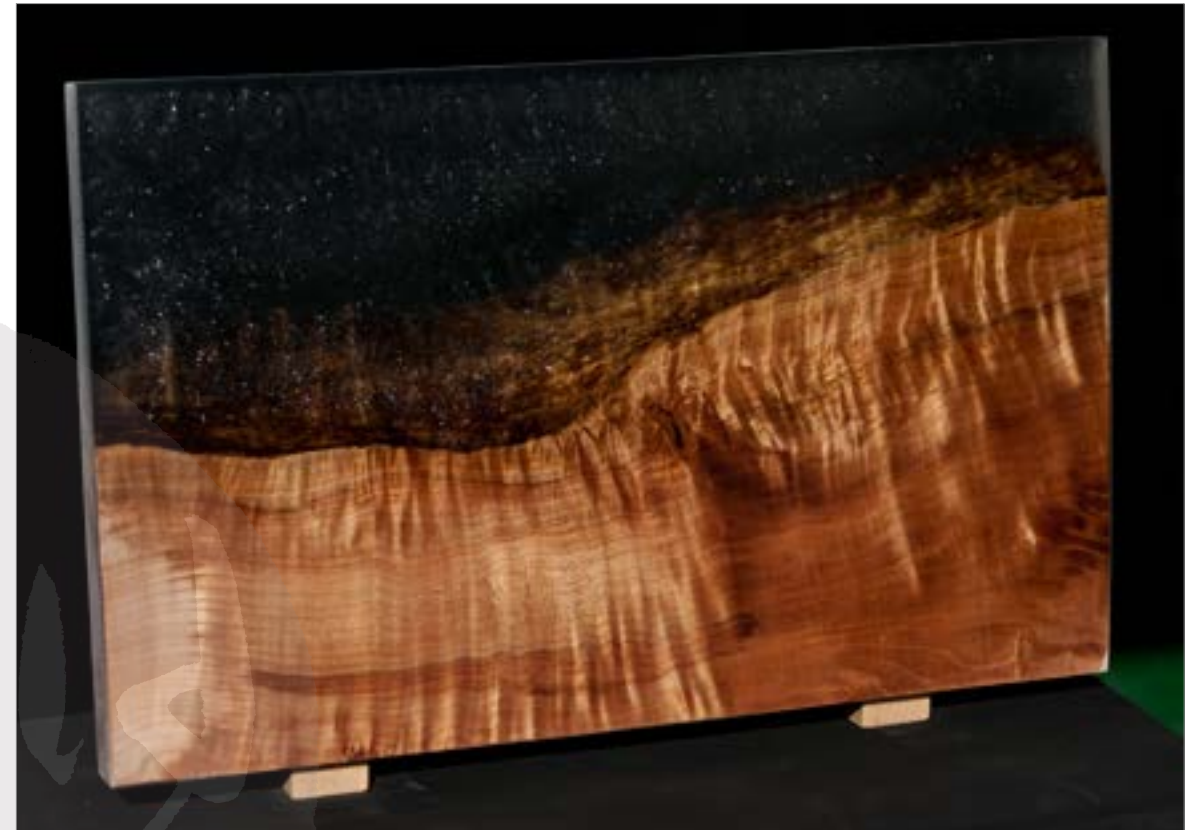
작품번호 058
연둣빛 그리움

설명: 그리움에 색깔이 있다면,
저의 그리움은 연둣빛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350*1800mm(벤치 제작), 2019-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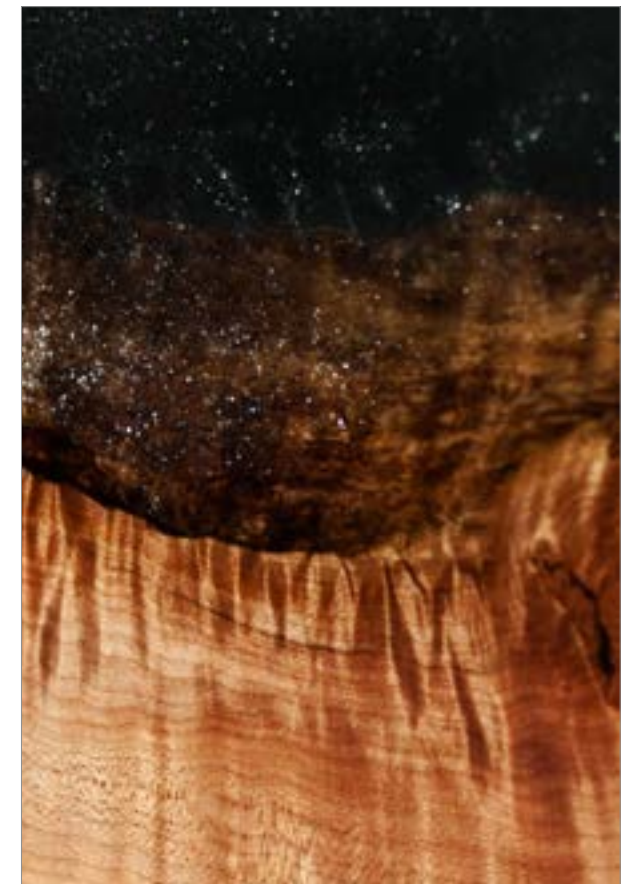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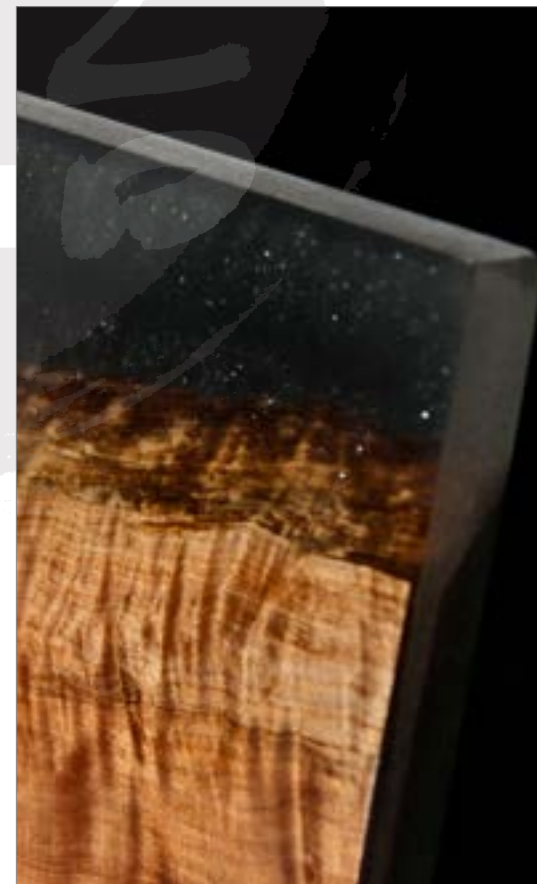
작품번호 059
기분 좋은 날

설명: 맑게 개인 하늘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운 것들을 그리워해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590*335mm, 2019-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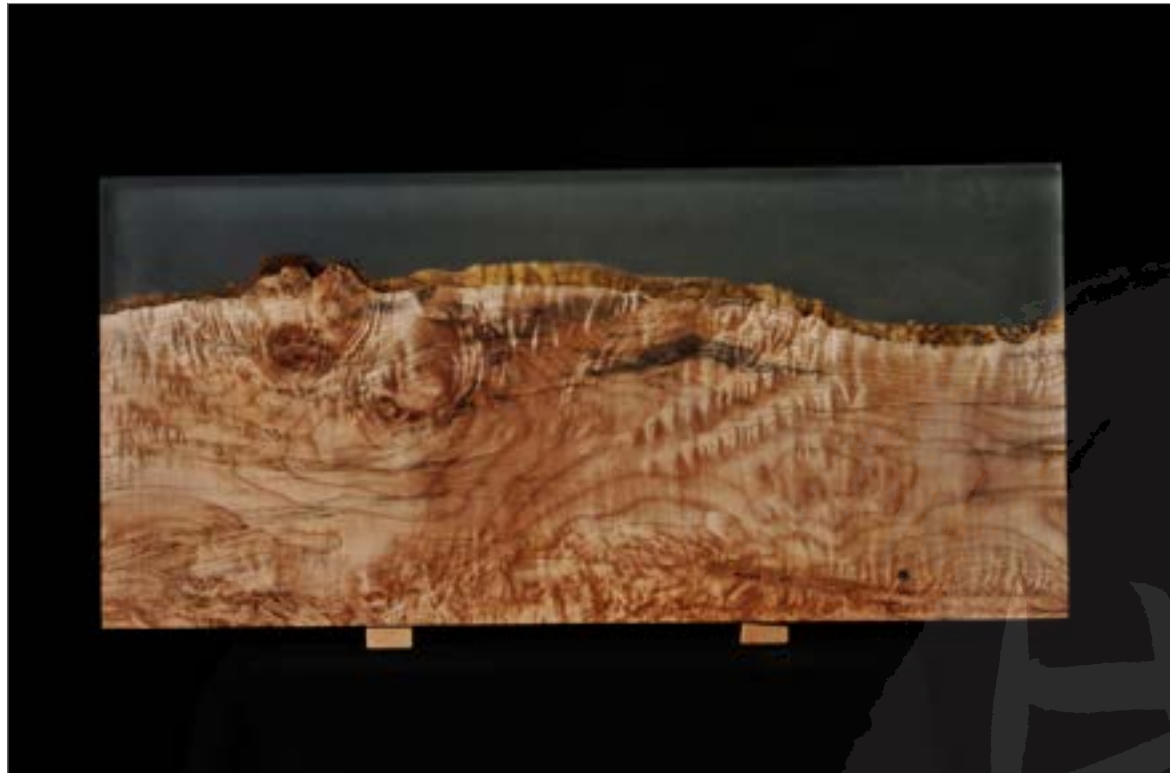
작품번호 060
눈 꽃

설명: 눈 꽃이 아름답게 흩날리던 어느 날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465*290mm, 2019-060



하늘이
— 주는
— 위안
| 레몬의
생명과
해님의
치유력

물이
— 주는
— 위안
| 아라와
가람에
의해
씻겨
져나
가는
아름



작품번호 101
빛이 내린 산등성이

설명: 산행 중에 만난 따스한 산등성이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700*330mm(벤치 제작), 2019-101



작품번호 103
벌거숭이 임금님

설명: 오늘의 우리는 매일 벗겨진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470*275mm, 2019-103



작품번호 071
작은 개울

설명: 작은 개울의 모래성이 왜 행복으로 다가오는지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775*325mm, 2019-071



작품번호 072
물안개가 피어 오르는 강가

설명: 비 온 뒤 피어 오르는 물안개를 담아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505*350mm, 2019-072



작품번호 074
작은 섬 하나

설명: 조그마한 섬에 담긴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1200*500mm(스탠딩 좌대제작), 2019-074



작품번호 073
가뭄은 끝나고

설명: 새 생명을 담은 비가 갈라진 대지를 적십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530*305mm, 2019-073



작품번호 075
섬을 품다

설명: 보이는 작은 부분과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
보이는 섬은 보이지 않는 섬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런지요.
수종: 마파벌 / Size : 1180*570mm, 2019-075



작품번호 076
일상

설명: 만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약속된 이별에 슬퍼하는 우리네 일상.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530*330mm, 2019-076



작품번호 078
옥색 추억

설명: 어디서 본 듯한... 꿈 속이었는지, 그림 속이었는지 모를...
추억의 향수가 떠 오르는 건 왜 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860*490mm, 2019-078



작품번호 077
작은 개울가

설명: 깊은 숲 속 작은 개울가에 그려진 예쁜 그림을 만납니다.
지친 산행의 고됨을 훌리고 가라고, 조용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수종: 메이플빌 / size: 695*335mm, 2019-077



작품번호 079
숨겨진 이야기

설명: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들은 빛이 나는 것을...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720*310mm, 2019-079

물이 아라와
 주는 가람에의해
 위안 씻겨져나가는
 아픔



작품번호 080
 물놀이와 빛놀이

설명: 물에 비친 빛이 너무 아름다워 먹먹한 날...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700*320mm, 2019-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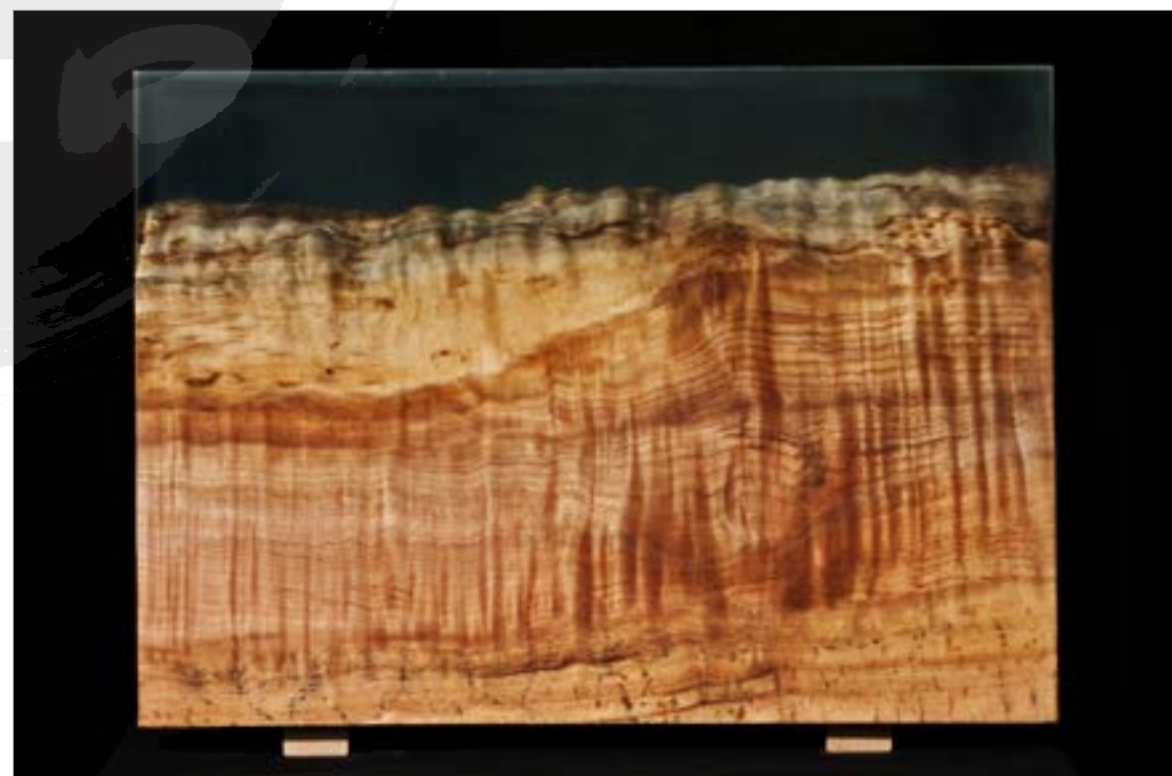
작품번호 081
 꿈 속

설명: 꿈 속을 거닐던 어느 날의 초상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955*495mm, 2019-081



작품번호 082
 개울가

설명: 어릴 적 발가벗고 물놀이하던 예쁜 개울가를 다시 만납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475*285mm, 2019-082



작품번호 083
 진한 그리움

설명: 그리움이 진할 수록 그 그리움을 잊는 우리네 생각은
 오히려 색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475*340mm, 2019-083



작품번호 084
 후회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850*295mm, 2019-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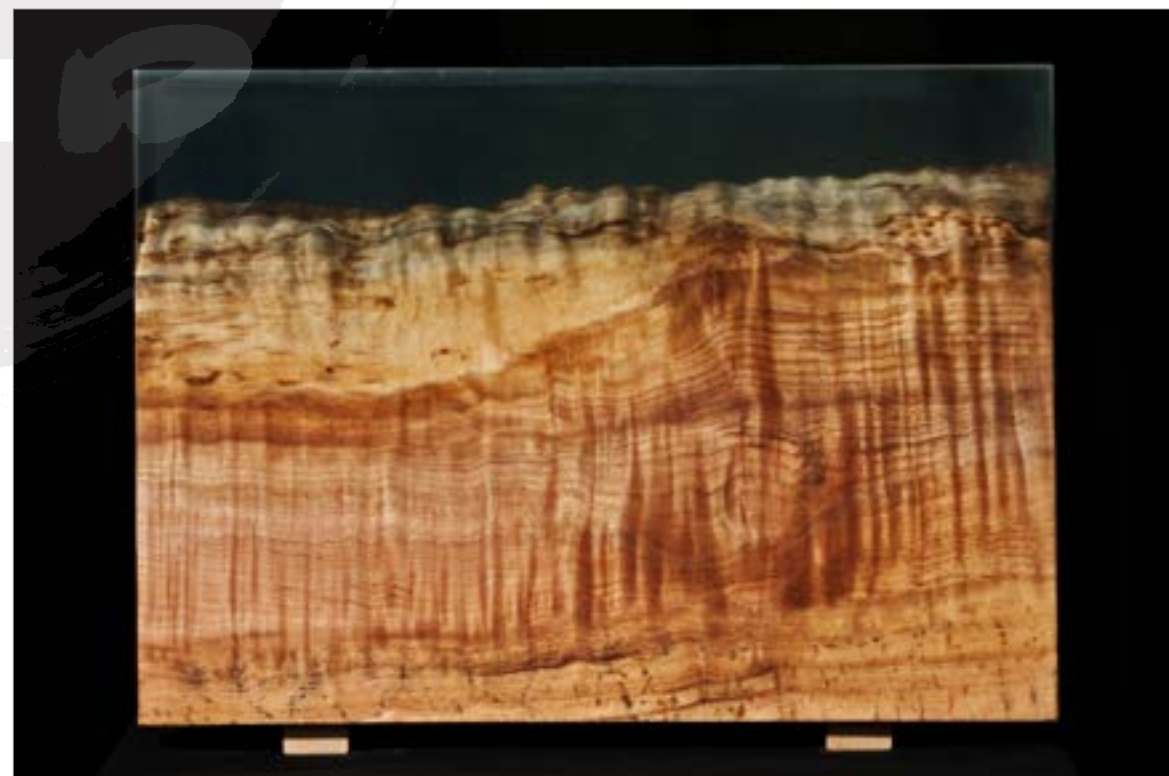
작품번호 082
 개울가

설명: 어릴 적 발가벗고 물놀이하던 예쁜 개울가를 다시 만납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475*285mm, 2019-082



작품번호 102
 인생은 뫼비우스의 띠

설명: 우리네 삶이 뫼비우스의 띠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760*205mm, 2019-102



작품번호 083
 진한 그리움

설명: 그리움이 진할 수록 그 그리움을 담은 우리네 생각은
 옅은 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475*340mm, 2019-083

BARABOM

혼돈이 주는 위안
 — 혼돈의 낯섦과 불편함마저 감싸 안는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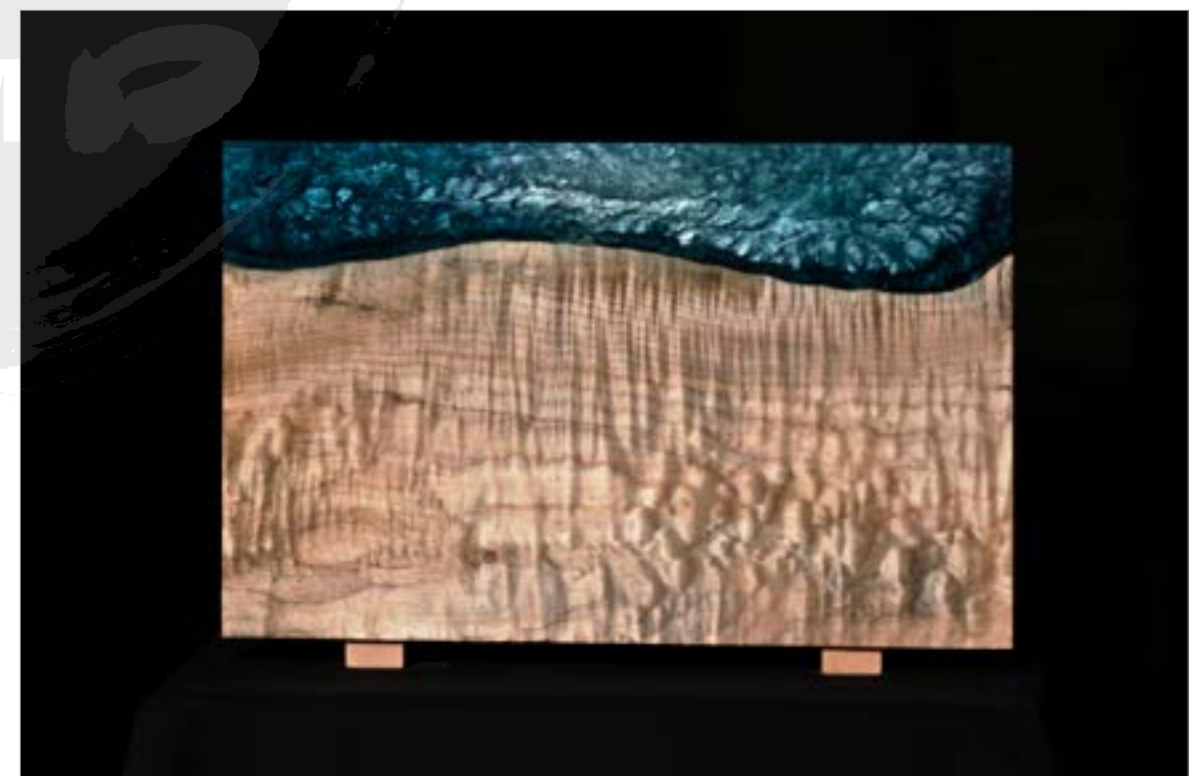
작품번호 091
 혼돈 속 정렬

설명: 혼돈과 정렬을 아우르는 나무를 생각해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455*350mm, 2019-091



작품번호 092
 혼돈 그리고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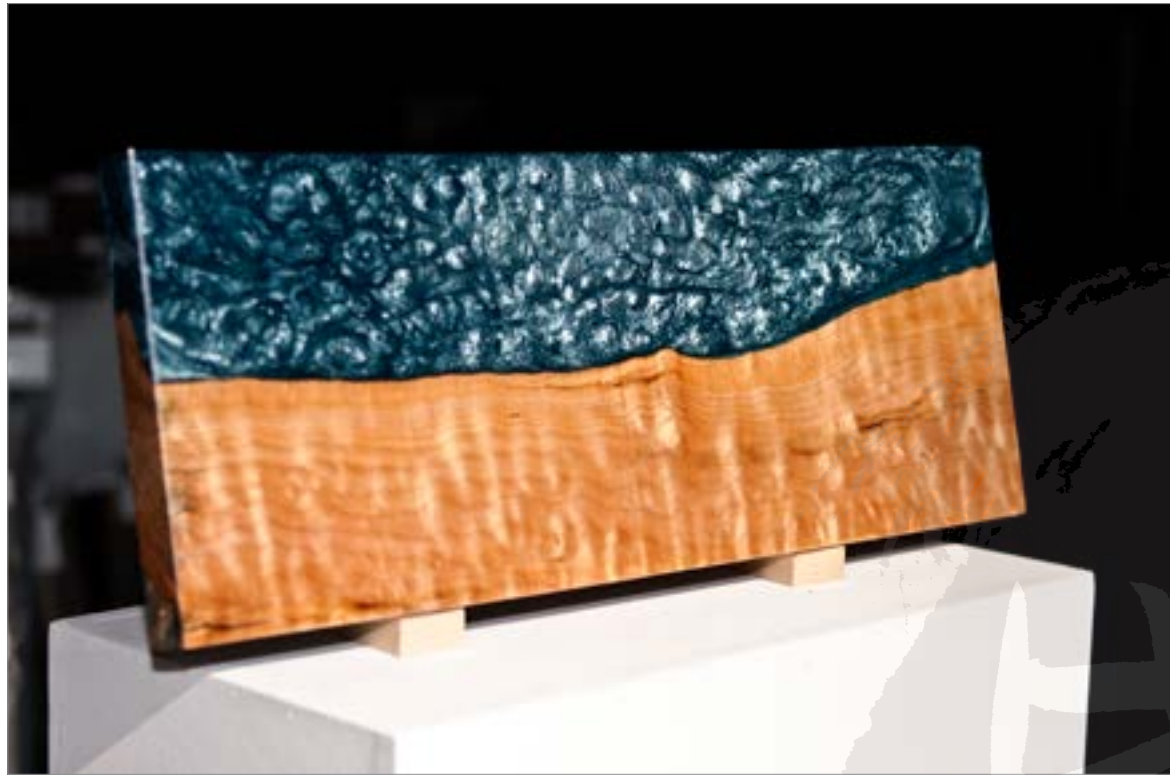
설명: 쉽게 어울리지 않는 혼돈과 위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650*280mm, 2019-092



작품번호 093
 아름다운 혼돈

설명: 혼돈에 담긴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455*285mm, 2019-093

흔돈이 | 혼돈의 낯설과
 - 주는 불편함까지
 - 위안 감싸 안는
 나무



작품번호 094
 태초의 시간

설명: 시작과 끝은 정돈이고 정렬이지만 과정은 혼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활발한 혼돈은 정돈의 시작점이고 에너지가 가장 많은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560*205mm, 2019-094



작품번호 096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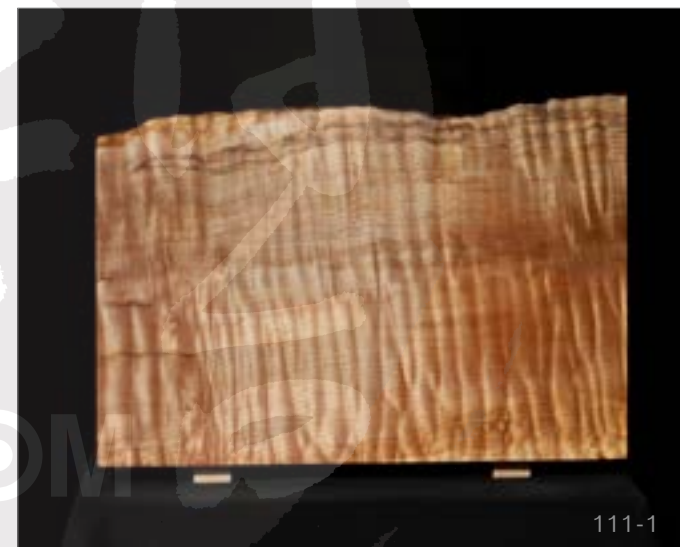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470*365mm, 2019-096



작품번호 095
 꽃잎이 흩날리면

설명: 시간의 흐름이 아워워, 지나간 겨울의 눈보라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 395*320mm, 2019-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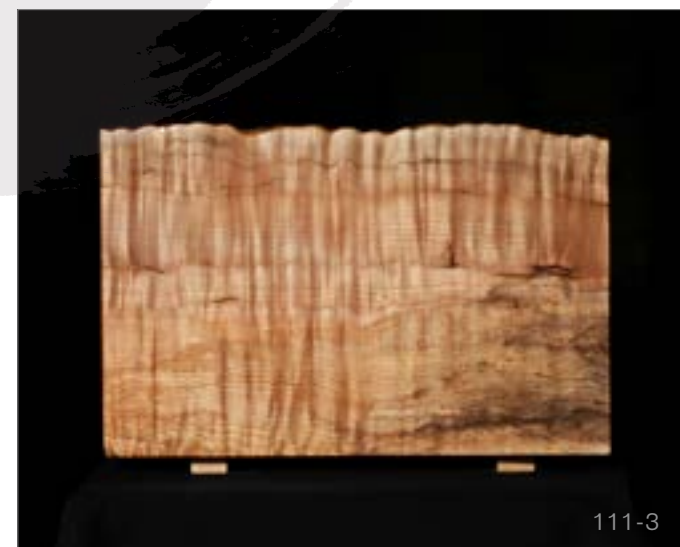
옛지가 시간을 간직한
— 주는 나무테와
— 위안 또다른 나무이야기



111-1



111-2



111-3



111-4

작품번호 111-1, 111-2, 111-3, 111-4
혼돈 속 정렬

설명: 무언가가 끝나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종: 피치픽에이플 / Size : 사진순 480*325, 485*260, 470*305, 540*370mm,
2019-111-1, 111-2, 111-3, 111-4



작품번호 114
또 하나의 인연

설명: 인연이 참 무섭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연으로 이어져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또한 나와 떨어져 있던 또 하나의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400*230*700mm, 2019-114



작품번호 112
금도끼, 은도끼

설명: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햇빛, 눈, 비, 바람을 오롯이 받은 나무가 자연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색깔로 감동을 줍니다. 우리네 인생사도 마찬가지 아닐런지요.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450*450*360mm, 2019-112



작품번호 113
자연은 의사 선생님

설명: 가만히 기대어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나무가 치유의 마법을 가진
위대한 의사 선생임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 퍼시픽메이플 / Size: 360*300*450mm, 2019-113

우든
_레진
_퍼니처
나무와
레진이
만들어낸
가구들



레진퍼니처
월넛캐비닛
수종: 월넛 / 2019



레진퍼니처
월넛 메인테이블

수종: 월넛 / Size : 2680*790*30mm, 2019



레진퍼니처
메이플 메인테이블

수종: 메이플 / Size : 2250*695*42m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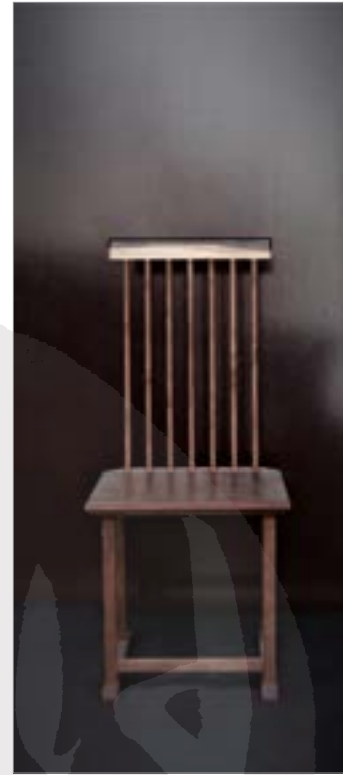


BARABOM



레진퍼니처
메이플 콘솔

수종: 메이플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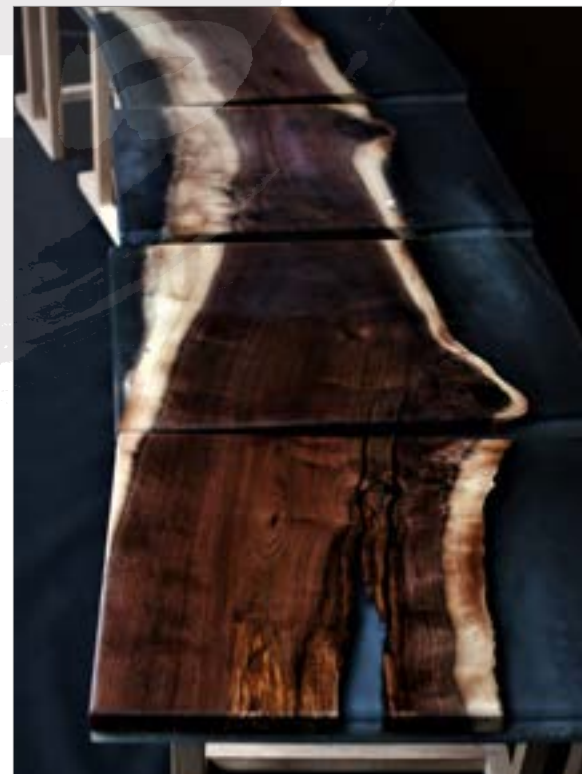
레진퍼니처
월넛 & 메이플의자

수종: 월넛 / 2019



레진퍼니처
메이플 의자

수종: 월넛 / 2019



레진퍼니처
월넛벤치

수종: 월넛 / 2019



레진퍼니처
메이플 스톨
수종: 메이플 / 2019



레진퍼니처
메이플 벤치
수종: 월넛 / 2019



레진퍼니처
메이플 다탁
수종: 메이플 / 2019



레진퍼니처
월넛의자
수종: 월넛 / 2019

BARABOM

BARABOM



레진퍼니처
메이플 스툴

수종: 메이플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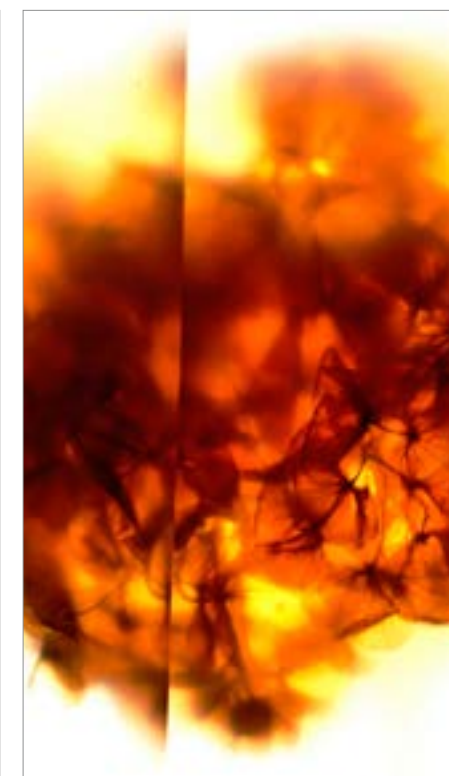
레진퍼니처
메이플 수납장

수종: 메이플 / 2019



레진퍼니처
메이플 스툴

수종: 메이플 / 2019



레진퍼니처
레진조명

수종: 메이플+수국 / 2019

BARABOM

고마운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바라봄이라는 작가의 이름으로 하는 첫 우드앤레진 전시회입니다.

나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로 다른 분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전해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시회 날짜를 잡고 진행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 정말 고마운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분들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지
표현이 서툰 저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네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잊지 않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십구년 끝월 즈음에

바라봄 장 지용 올림



